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병원, 약국, 대중교통 등 생활서비스는 주로 주간 이용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야간·교대근무자는 퇴근 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.
- 이에 SGIS의 사업체·종사자 통계와 생활권 분석을 활용하여 야간 근무 수요가 높은 지역과 심야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불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.

□ 추진과정

- SGIS 업종통계지도와 대화형 통계지도로 제조업, 운수·창고업, 보건업 등 교대근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사업체와 종사자 분포를 분석하였다.
- 주요 근무거점을 선정한 뒤 생활권역통계지도에 공공심야약국, 응급 의료기관, 교통시설 자료를 결합하여 거리·시간별 접근성을 비교하였다.

■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:

- SGIS의 업종·종사자 통계와 생활권 분석을 활용하여 야간근무 수요에 비해 의료·교통·생활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도출하였다.

□ 추진내용

- 야간근무 관련 업종의 종사자 밀도를 수요지표로 설정하고, 심야 의료시설·교통시설·생활편의시설의 분포를 공급지표로 설정하였다.
- 두 지표를 종합한 ‘야간생활 취약지수’를 구성하여 지역별 격차를 지도에 시각화하고, 취약지역별로 우선 확충이 필요한 시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.



□ 추진성과

- 야간근무 수요는 높지만 심야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[지역명] 등 [취약지역 수]개 지역을 확인하고,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 유형을 도출하였다.
- 분석지도와 지역별 점검표를 제작하여 심야약국·교통시설 등의 입지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, 동일한 분석방법을 다른 산업단지와 교대근무 밀집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